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 이화여대 ECC  
SEOUL Arthouse MOMO EWHA WOMANS UNIV. ECC  
부산 영화의전당  
BUSAN Busan Cinema Center

The 7th  
**ARAB  
FILM  
FESTIVAL** مهرجان الفيلم العربي

제7회 아랍영화제 2018. 6. 1 FRI - 6. 6 W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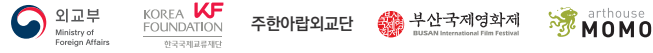
주최  
Host



주관  
Organizers



후원  
Sponsors



공식협찬사  
Official Sponsor



**Host** Korea-Arab Society

**Organizers** ARAB Film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Busan Cinema Center

**Sponso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Korea Foundation  
Arab Diplomatic Corps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rthouse MOMO

**Official Sponsor** ETIHAD AIRWAYS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소개	Korea-Arab Society in Brief	02
인사말	Greeting Message	03
서문	Foreword	04
올해의 특징	Things Worth Noting at ARAFF 2018	05
아라비아안 웨이브	Arabian Wave	06
포커스 2018: 일어서다, 말하다, 외치다	Focus 2018: Rise Up, Speak Out	26
프로그램 이벤트	Program Events	34
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36
상영관 안내	Theater Information	38
아랍영화제 스태프	Festival Staff	40

## 한국-아랍소사이어티 Korea-Arab Society

0616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403호  
Trade Tower #1403, 511,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06164  
**TEL** +82-2-551-7130 **FAX** +82-2-551-7133 **EMAIL** info@korea-arab.org  
www.korea-arab.org



##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소개 Korea-Arab Society in Brief

### 명칭 Official Name

(재)한국-아랍소사이어티 Korea-Arab Society (KAS)

### 성격 Description

아랍과의 전방위 협력 채널로써 설립된 민-관 합동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

A non-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to promote bilateral cooperation on wide-ranging areas between Korea and the Arab world under a public-private partnership.

### 창설취지 Purpose

한국과 아랍 양측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재단을 창설, 공동 운영하면서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확대를 도모

Korea-Arab Society was founded and is run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of Korea and the Arab nations and business to expand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between Korea and the Arab world.

### 참여자 Participants

한국 및 아랍 22개국의 정부, 기업, 단체

The Korean government, the governments of 22 Arab nations, corporations and other organizations

아랍 22개국 |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소말리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지부티, 카타르, 쿠웨이트, 코모로, 튀니지, 팔레스타인

The 22 Member States of the Arab League | Algeria, Bahrain, Comoros, Djibouti, Egypt, Iraq, Jordan, Kuwait, Lebanon, Libya, Mauritania, Morocco, Oman, Palestine, Qatar, Saudi Arabia, Somalia, Sudan, Syria, Tunisia, United Arab Emirates, Yemen

### 재원 Source of Funds

양측 정부와 기업의 기여금으로 조성

Contributors received from the governments of Korea and the Arab nations

### 사업목표 Major Projects

- 아랍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분야 유력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상호이해를 위한 문화교류 사업
- Building network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ectors
- Exchanges in culture and academia for better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 홈페이지 Homepage

www.korea-arab.org



## 인사말 Greeting Message

앗살라무 알라이쿰, 안녕하십니까.

제7회 아랍영화제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시작된 아랍영화제는 매년 아랍에서 사회적·예술적 관심을 끄는 주제를 중심으로 선정된 최신의 우수 아랍 영화들을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감독을 비롯한 영화관계자도 매년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튀니지 출신의 여성감독인 카우테르 벤 하니아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올해 아랍영화제 상영작 중 하나인 카우테르 벤 하니아 감독의 <뷰티 앤 더 독스>는 작년 칸영화제에서 '주목할만한 시선'에 초청되는 등 세계 우수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벤 하니아 감독과 함께 진행되는 '관객과의 대화', '오픈 토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 하셔서 아랍과 영화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랍 영화를 통해 아랍의 문화와 관심사를 알아가는 것처럼, 아랍에서도 한국영화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6월 아랍영화제 한국 개최와 더불어 11월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랍영화제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리며, 서울과 부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크란

Assalamualaikum, greetings,

It is my pleasure to welcome everyone to the 7th ARAB Film Festival.

Starting in 2009, the ARAB Film Festival (ARAFF) has been presenting the latest Arab films every year with themes that draw social and artistic attention. The ARAFF has also been bringing Arab filmmakers every year. This year, a Tunisian female director Kaouther Ben Hania will make her first visit to Korea.

Kaouther Ben Hania's highly acclaimed film *Beauty and the Dogs* will be on screen during the ARAFF this year. Her film has been screened in other film festivals around the world including Cannes Film Festival in which it has been selected for Un Certain Regard section last year. We invite you to participate in the QA and Open Talk program to hold deep conversations about Arab and films with the director herself.

Just as Koreans learn the culture and interests of the Arabs through their films, the Arabs are learning more about Korea through Korean Film Festival in the Arab region. After the ARAFF in Korea in June, the Korean Film Festival will be held in the United Arab Emirates in November this year.

W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d support for the ARAFF, and look forward to having you in Seoul and Busan.

Thank you, Shukran

김진수 Jin Soo KIM

(재)한국-아랍소사이어티 사무총장 Secretary-General, Korea-Arab Society



## 서문 Foreword

일곱 번째 아랍영화제가 열립니다. 중동 지역에 같이 있어 아랍영화로 오해 받기도 하는 이란영화는 적은 편 수 이긴 하나 꾸준히 수입상영 되어 왔지만 아랍영화제가 시작하기 전까지 아랍영화를 극장에서 볼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육 년 간 아랍영화제를 통해 소개된 아랍영화들의 높은 영화적 완성도와 매년 점유율 80% 이상으로 호응해준 관객들의 반응을 감안하면 안타까운 상황 이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2-3년간 팔레스타인의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여성감독인 하이파 알 만수르 감독 등의 영화가 수입상영 되어 영화 관람문화에 변화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아랍영화제는 아랍영화를 한국의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일과 함께 아랍의 관객들에게 한국영화를 보여줄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해 가을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택시운전사> 등의 한국영화를 상영하면서 첫 시작을 하였습니다. 한국영화를 울고 웃으며 본 아랍의 관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오며 엄지를 척 올리거나 고마운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영화가 가진 소통의 힘을 새삼 확인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아부다비의 한국문화원과 함께 조금 더 규모를 갖추어 한국영화제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아랍의 쌍방향 문화교류를 목표했던 아랍영화제가 조금씩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아랍영화제를 꾸준히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에게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깊은 고민과 토론 끝에 올해부터 아랍영화제는 더 좋은 프로그램과 관객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유료화를 결정하였습니다. 관객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아트하우스 모모와 영화의전당에서 뵙겠습니다.

We are pleased to celebrate the 7th ARAB Film Festival this year. Iranian films, often mistaken for Arab films as they are also from the Middle East, have been continuously imported and released in theatres despite their relatively small number. Unlike Iranian films, it was not easy to watch Arab films at the cinema prior to the launch of ARAB Film Festival in Korea. Considering the high quality of the Arab films showcased by the ARAB Film Festival as well as the passionate responses from its audiences who filled up the theater at more than 80% occupancy rate for the last six years, it is regrettable that we did not have many chances to introduce Arab films. Happily, over the past two to three years, there were some changes made to film-viewing patterns as Korean distributors acquired rights for and theatrically released interesting Arab films by a Palestinian director Hany Au-Assad and Saudi Arabia's first woman director Haifaa Al-Mansour.

ARAB Film Festival was originally established not only to introduce Arab films to Korean audiences but also to showcase Korean films for Arab audiences. We took the first bold step forward to achieving our goal last year as we screened Korean films including *A Taxi Driver* in Abu Dhabi and Dubai, UAE. We saw Arab people laughing out loud and shedding tears as the stories unfolded. They also said "Thank you" or gave a thumbs-up gesture to us after watching the films. We had the honor to witness the power of cinema that allows us to communicate with others.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we are planning to host the Korean Film Festival once again after expanding its scope and size with kind support from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Abu Dhabi, UAE.

We truly believe it is your continued love and support that motivate us to work hard, step by step to ensure mutual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the Arab world. After careful consideration and discussion, we have decided to charge you for tickets to the screenings so that we could provide you with better customer service and program.

We sincerely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in advance and hope we could see you soon at Arthouse MOMO and Busan Cinema Center.

**최낙용 Nag Yong CHOI**

아랍영화제 집행위원장 Festival Director, ARAB Film Festival



## 올해의 특징 Things Worth Noting at ARAFF 2018

아시아 유일의 제7회 아랍영화제가 올해 12편의 아랍영화로 관객을 찾아옵니다. 아랍영화를 극장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한국의 영화환경 속에서 아랍영화제는 매년 최신 아랍영화를 소개해오으로써 한국 관객들이 아랍문화와 아랍영화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칸, 토론토, 베니스 등의 영화제에서 러브콜을 받는 노련한 중견 감독의 작품들부터 자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데뷔한 신인 감독들의 재기 발랄한 영화까지 아랍영화제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아랍영화를 소개합니다.

동시대 아랍영화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아라비안 웨이브' 섹션에서는 격변하는 현재의 아랍 사회, 삶과 죽음이 일상에 교차하는 공간 속에서 국가와 종교에서 벗어나 개인 내면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아랍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랍사회를 지탱해 온 종교적 가치 안에서 새로운 세대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되는 시리아 내전과 팔레스타인 공습,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난민문제 등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 삶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족과 집을 잃고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최근 몇 년 간 아랍영화에서 가장 많이 다루지고 있습니다. 올해 아랍영화제 역시 머물거나 떠나는 이들의 좌절과 희망, 그 안의 연대와 우정을 다룬 영화들을 소개하며 뉴스를 통해 단편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아랍의 현실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특별섹션인 '포커스 2018: 일어서다, 말하다, 외치다'로 동시대 아랍의 여성들의 삶에 대해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들의 목소리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미투운동의 바람이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부당한 폭력과 억압들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고 사회를 바꾸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올해 '포커스 2018: 일어서다, 말하다, 외치다'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아랍 사회의 여성들이 종교와 체제 아래서 소리 내어 말할 수 없었던 성폭력에 대해 고발하고 안전한 여성혐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여성의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조금은 낯설지만 그래서 더욱 매력적인 제7회 아랍영화제 상영작들이 다양함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관객 여러분의 갈증을 채워줄 것이라 기대 합니다.

The one and only ARAB Film Festival in Asia is pleased to celebrate its 7th edition featuring a total of 12 Arab films. Since it is not easy to watch Arab films at the movies in South Korea, we have been exerting every effort to help Korean audiences getting familiar with Arab culture and cinema by introducing the latest breakthrough Arab films every year. We have been showcasing a wide spectrum of Arab films both by experienced and skilled directors beloved by renowned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such as Cannes, Toronto, and Venice Film Festivals and by promising young directors who made their directorial debut thanks to wholehearted support from their country.

In a section called "Arabian Wave" that allows you to get a peek into the contemporary Arab cinema, you will follow Arab people's journey of self-discovery away from their religious and national identities in the ever-changing Arab society where life and death are closely intertwined in their day-to-day lives. Finding meaning in their lives on the basis of religious values, a long-time pillar of the Arab society, younger generations have been rebuilding their own communities and exploring the importance of family and neighborhood. One of the frequently visited subjects in Arab cinema for the past few years is people who live in the midst of war or relocate to a new place after the loss of their family and home due to the continuation of the Syrian Civil War and Israeli-Palestinian Conflict as well as to the refugee crisis without any concrete solutions. This year, ARAB Film Festival aims to introduce films capturing despair and hope of those who either stay or leave and emphasizing friendship and solidarity on their journeys while revealing the realities of the Arab world of which we could only see the fragments through news.

By featuring a special section called "Focus 2018: Rise Up, Speak Out" ARAB Film Festival intends to pay attention to the voices of contemporary Arab women instead of simply introducing them and telling their stories. We have witnessed how the global phenomenon of social media campaign called #MeToo has changed our society by unveiling the violence against and repression of women. In line with this, the films shown as a part of this section aim to call attention to sexual violence hidden for the sake of practicing the religion and maintaining the system, challenge misogyny that creeps into our everyday lives, and raise voices to protect women's rights.

The selected films for the 7th ARAB Film Festival may seem unfamiliar to you; however, they are equally captivating and inspiring. The screenings of these films will definitely become a meaningful opportunity to quench your thirst for something new and diverse.

**박은진 Eunjin PARK**

아랍영화제 프로그래머 Programmer, ARAB Film Festival

# 아라비안 웨이브 Arabian Wave

동시대 아랍영화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아라비안 웨이브’ 섹션에서는 올해 9편의 영화를 소개한다. 혁명의 여파와 전쟁의 지속으로 아랍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하다. 그런 가운데 동시대 아랍영화는 격변하는 사회,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일상 속에서 국가와 종교에서 벗어나 개인 내면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아랍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과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바람이 데려다줄 거야>, 죽을 가까이에서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는 <죽음을 떠나는 남자>, 무너지는 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아랍사회를 지탱해온 전통적 가족의 의미에 대해 묻는 <자그로스>가 소개된다. 또한 현재 아랍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 내전과 난민을 다룬 영화도 만나볼 수 있다. 교전이 계속되는 다마스쿠스의 한 아파트에 고립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시리아에서>, 폭격으로 고향인 알레포를 떠난 난민들의 힘겨운 여정과 그 속에서의 우정을 다룬 <마리암과 리나>를 통해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세계 영화제에서 이미 인정받은 노련하고 중량감 있는 감독의 영화부터 미학적 독특함으로 무장한 재기발랄한 신인감독의 작품들도 상영된다. 아랍에미리트의 신예 압둘라 알 카비 감독은 여성들간의 화해를 <오직 남자들만 무덤으로 간다>에서 독특한 화법으로 제시한다. 설치미술가인 할라 엘꾸시 감독은 첫 번째 영화 <선인장>에서 특별한 우정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몽환적이고 실험적인 미장센으로 그린다. 모로코의 대표감독 나빌 아우크의 신작 <라지아>는 격변하는 모로코 사회와 새로운 세대를 교차하며, 팔레스타인 여성감독 안느마리 자시르의 <와지브>는 아랍사회의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해를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세련되게 그려낸다.

2018년 ‘아라비안 웨이브’를 통해서 우리는 아랍사회에 뿌리깊게 이어져 오는 종교적, 문화적 전통과 혁명 이후 변화의 흐름을 새로운 영화적 가능성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는 아랍영화의 현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Arabian Wave,” a section that takes a close look at the contemporary Arab cinema trends, features a total of nine films this year. In the aftermath of the revolution along with the continuation of conflicts, the Arab society is still going through a period of turbulence, full of never-ending problems. In the meantime, contemporary Arab cinema tends to focus on Arab people’s journey to find their inner selves away from their religious and national identities as well as from the turmoil of the ever-changing society where life and death are closely intertwined in their day-to-day lives. In line with this, this section features outstanding films including: *Tramontane* that prompts you to think about what it means to find your root and have a family; *Until the End of Time* about the protagonists who find meaning in their lives when death is near; and *Zagros* that challenges the meaning of family believed to be a pillar of the Arab society in the traditional sense by showing how family can fall apart.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find films on civil wars and refugees which would be the most important and severe issues in the current Arab society. For example, *Insyriated* focuses on a story of an isolated family trapped in an apartment in Damascus exposed to continuous skirmishes while *The Guest* follows a tough journey of refugees who left their hometown, Aleppo after a series of bomb attacks and explores their friendship blooming during that journey. The screenings of these films will be a meaningful opportunity to take a peek at the lives of Arab people that we hardly know.

This section also showcases a wide range of the latest films both by experienced and skilled directors with worldwide recognition in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ircuit and by emerging young directors willing to explore the aesthetic potential of cinema. Abdulla Al Kaabi, a rookie director from the UAE presents *Only Men Go to the Grave* with a theme of reconciliation among women in a unique and unexpected way. Installation artist Hala Elkoussy made her directorial debut with *Cactus Flower* that follows the protagonists on a journey to find their true selves through a special friendship with dreamlike and experimental mise-en-scène. Meanwhile, *Razzia*, the latest work by a prominent Moroccan director, Nabil Ayouch juxtaposes the images of the ever-changing Moroccan society with those of younger generations. Last but not least, *Wajib* by a promising Palestine woman director, Annemarie Jacir gives a sophisticated account of the conflict and reconciliation between the generations in the Arab society through a compelling story of father and son.

The 2018 edition of “Arabian Wave” will be a fruitful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Arab cinema that incorporates the emerging tendency to strive for change and sublimates deeply rooted religious and cultural traditions into a new cinematic potential



## 선인장 Cactus Flower

| Egypt, Qatar, UAE, Norway  
 | 2017 | 103min | DCP  
 | Color | Fiction  
 | Arabic | 12세

아시아 프리미어 Asian Premiere

지방 출신인 아이다는 배우로서의 경력을 쌓으려 고군분투 중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이웃이자 세상을 등진 부르주아 사미하와 함께 카이로 거리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갈 곳도 가진 돈도 없는 이 두 여성은 거리 생활에 친숙한 야신의 도움을 받아 쉼터를 찾아 나서기로 한다. 대부분 지루하고 때때로 비참한 이 여정은 마치 자아 찾기 프로젝트와도 같다. 그리고 절대 어물릴 수 없을 것 같은 세 사람 사이에서 놀라운 우정이 피어난다. 가시 돋친 선인장에서 피어 오른 아름다운 꽃처럼 말이다.

Aida is a struggling actress from a provincial background. She finds herself on the streets of Cairo along with her neighbor Samiha, a reclusive bourgeois. With no money and nowhere to go, the two women, aided by Yassin, a street-savvy youth, embark on a journey to find shelter. Amid the banal and at times disastrous turns their journey takes, they move along parallel journeys of self-discovery. An extraordinary friendship grows among the unlikely trio; a friendship comparable to a delicate flower blooming from a thorny cactus.

2017 두바이국제영화제 | 2017 로테르담국제영화제

서울 Seoul 6.3(Sun) 17:30  
 6.5(Tue) 11:30

부산 Busan 6.2(Sat) 16:40  
 6.5(Tue) 18:10

카이로 출생. 할라 엘쿠시 감독은 사진작가이자 카이로와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비주류 아티스트이다. 2004년에는 카이로를 기반으로 하는 사진, 비디오 작가들을 위한 독립 프로젝트 CIC(Contemporary Image Collective)를 공동 설립했다. 엘쿠시의 작업들은 런던, 뉴욕, 암스테르담 등 전세계의 미술관과 비엔날레에서 전시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중동, 북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재능 있는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Abraaj Capital 예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선인장>은 그녀의 첫 번째 장편영화이다.

Born in Cairo, Hala Elkoussy is a Cairo and Amsterdam-based photographer and visual artist. In 2004, she co-founded the Contemporary Image Collective(CIC), an independent initiative for photographers and video artists based in Cairo. Her works have been exhibited at numerous museums and biennales across the world including the ones in London, New York, and Amsterdam. In 2010, she won the Abraaj Capital Art Prize designed for talented artists from the Middle East, North Africa, and Asia. *Cactus Flower* is her first feature film.

감독 Director  
**할라 엘쿠시**  
**Hala Elkoussy**





## 시리아에서 *Insyriated*

| Belgium, France, Lebanon  
 | 2017 | 85min | DCP  
 | Color | Fiction  
 | Arabic | 15세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아잔은 다마스쿠스의 아파트가 포위되면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된다. 가족과 이웃을 전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집을 안전한 피난처로 만든다. 하지만 언제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르고, 마당은 무자비한 저격수의 사격권 안이다. 게다가 거리에는 물건을 훔칠 기회만 엿보는 도둑들로 득실댄다. 자신들의 피난처 안에서 어떻게든 가족들의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생사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Trapped inside her house in a city under siege, Yazan, mother of three, turned her flat into a safe harbor for her family and neighbors, trying to protect them from the war outside. When bombs threaten to destroy the building, when snipers turn the courtyards into deadly zones, and burglars break in to claim their dreadful bounties, maintaining the thin balance of routine inside the walls becomes a matter of life and death.

2017 베를린국제영화제 - 파노라마 부문 관객상 | 2017 토론토국제영화제

서울 Seoul 6.2(Sat) 11:30  
 6.6(Wed) 20:00

부산 Busan 6.2(Sat) 14:50  
 6.4(Mon) 18:40

필리프 반 레이우는 벨기에 국립영화학교 인사스(INSAS)와 미국영화연구소에서 촬영을 전공하였다. 광고와 장편 다큐멘터리 등에서 촬영을 맡았으며, 브루노 뒤몽의 <예수의 삶> (1997)으로 장편 극영화 촬영감독 데뷔를 하였다. 사회적이면서 시적인 작품을 선호하는 그는 이후, <신이 우리를 외면한 날>(2009)로 연출 데뷔를 하였다. <시리아에서>는 그의 두 번째 연출작이다.

Philippe Van Leeuw studied at INSAS before moving to Los Angeles, where he studied cinematography at the American Film Institute. Upon his return to Europe, he took on the role as director of photography for feature documentaries and advertising. It was during these collaborations that he came to meet director Bruno Dumont, who would direct *La vie de Jésus* (1997), his feature film debut as cinematographer. His dedication to social and poetic films has lead him to his directorial debut, *The Day God Walked Away* (2009). *Insyriated* is his second feature film.

감독 Director  
 필리프 반 레이우  
 Philippe Van Leeuw





## 오직 남자들만 무덤으로 간다 Only Men Go to the Grave

| UAE  
| 2016 | 80min | DCP  
| Color | Fiction  
| Arabic | 12세

아시아 프리미어 Asian Premiere

1988년 전쟁이 끝난 후, 시각장애인인 어머니는 자신의 오랜 비밀을 털어놓겠다고 관계가 소원해진 딸들을 불러모은다. 하지만 그녀는 이야기를 마치지 못한 채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속에 딸들은 어머니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단서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갈등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딸들 역시 숨겨놓은 자신들의 비밀도 지키고, 마음 속 깊숙이 자리 잡은 죄책감도 해결해야 한다. 그러던 와중에, 한 여인의 등장으로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지고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다.

After the war ended in 1988, a blind mother welcomes her estranged daughters to tell them a secret. Unfortunately, she accidentally dies while professing it. During the funeral, the daughters try to deal with their mother's sudden death while at the same time; they work together to unveil her secret by looking for clues from visitors. Throughout, their own lives continue to unravel, giving room for buried family tensions to gradually surface while struggling to deal with their own secrets and deep-rooted guilt. All of a sudden, the daughters start to question everything about their mother's life after a peculiar encounter with a woman, to the shock of the family.

2016 두바이국제영화제 - 최우수 무흐르 에미라티상 | 2017 말뚝아랍영화제

서울 Seoul 6.3(Sun) 14:00 AC  
6.5(Tue) 14:00

부산 Busan 6.2(Sat) 18:50  
6.5(Tue) 14:30

아랍에미리트 감독 압둘라 알 카비는 2004년 '두바이 TV'의 진행자로 발탁되었다. 이후 약 4년간 방송사를 대표하는 진행자로 활약했다. 감독의 꿈을 오랫동안 키워왔던 그는 파리영화학교에서 영화 연출 석사 과정을 밟았다. 2011년에는 첫 단편 연출작인 프랑스 배우 장 르노가 출연하는 <철학자>로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 및 수상했으며, 두 번째 단편 <코쉬크>는 2014년 아부다비영화제에서 두 개 분야를 석권하였다. <오직 남자들만 무덤으로 간다>는 그의 첫 번째 장편 데뷔작이며, 2016년 두바이국제영화제 최우수 무흐르 에미라티상을 수상했다.

Abdulla Al Kaabi is an Emirati filmmaker. While pursuing his university studies, Abdulla became a lead presenter on Dubai TV in 2004. He continued in this post for the next four years gaining valuable hands-on experience in the field of production. Knowing that he always wanted to be in the Director's seat, he pursued a Master's Degree in Filmmaking at the École Internationale de Création Audiovisuelle et de Réalisation. In 2011, he directed his first award-winning short film, *The Philosopher*, starring famed French actor Jean Reno. His second short film *Koshk* won two awards at the Abu Dhabi Film Festival in 2014. *Only Men Go to the Grave* is his first feature film and won the Best Muhr Emirati Feature at Dub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감독 Director  
압둘라 알 카비  
Abdulla Al Kaabi







## 라지아 Razzia

| Morocco, France, Belgium  
 | 2017 | 119min | DCP  
 | Color | Fiction  
 | Arabic, Amazigh, French | 15세

아시아 프리미어 Asian Premiere

카사블랑카, 그 어느 도시보다 활기차고 매력적인 이 도시는 사실 위험천만한 곳이다. 이 영화는 카사블랑카를 배경으로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네 명의 인물을 따라간다. 록스타가 꿈인 Hakim, 사회가 규정한 여성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살리마, 늘 카사블랑카에 사는 것을 꿈꾸는 유대인 조, 성에 눈을 뜨면서 전통과 현대적 가치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네스. 한편,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틀라스 산맥에 자리한 어느 작은 마을에 열정적인 교사가 있다. 그는 사회로부터 침묵을 강요 받고, 그로 인해 부서진 꿈들은 메아리 속에 녹아 들어 세상에 울려 퍼진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모두 세상에 환멸을 느끼지만, 그들이 느낀 감정은 언젠가 이 도시를 다시금 살아나게 할 마음속의 불꽃이나 다름없다.

Casablanca, vibrant and rough, inviting yet unforgiving. Four souls in search of truth. Hakim, living in the conservative medina, dreams of being a rock star. Salima, struggles to free herself from a society that wants to define her. Joe, a Jewish restaurant owner, chooses to live in the Casablanca he fantasizes about, blurring his reality. Inès is torn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as she deals with her sexual awakening. More than three decades earlier, a passionate teacher in the Atlas Mountains is put to silence. Through the echo of his shattered dreams, their disillusionments embody the sparks that will light the city in flames.

2017 두바이국제영화제 | 2017 토론토국제영화제

서울 Seoul 6.1(Fri) 17:30  
 6.5(Tue) 19:30 AC

부산 Busan 6.1(Fri) 20:10  
 6.6(Wed) 14:00

나빌 아우크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오스카상)와 프랑스영화아카데미(세자르상)의 회원이자 아랍영화아카데미의 이사를 맡고 있다. 1997년 <메크툼>으로 감독 데뷔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모로코에서 만든 영화산업(Film Industry, Made in Morocco)'이라는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40편의 장르영화를 제작하였다. 2011년에는 중동 지역에서 촬영한 첫 장편 다큐멘터리 <마이 랜드>를 선보였고, 카사블랑카에서 있었던 자살폭탄테러로부터 영감을 얻은 <신의 전사들>을 연출하였다. 2015년 <머치 러브드>는 칸영화제 감독주간에서 상영되었다.

Nabil Ayouch is a member of the 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 (the Oscars), the French Film Academy (Les Cesar), and sits on the board of the Arab Film Academy. In 1997, he directed his first feature film, *Mektoub*. Between 2005 and 2010, he produced 40 genre films as part of the Film Industry, Made in Morocco project. In 2011, he released his first feature-length documentary, *My Land*, which was filmed the Middle East and also finished *Horses of God*, the film adaptation of Mahi Binebine's novel *The Stars of Sidi Moumen*, inspired by the May 16th, 2003 suicide bombings in Casablanca. In 2015, his film *Much Loved* was chosen for the Directors' Fortnight at the Cannes.

감독 Director  
 나빌 아우크  
 Nabil Ayouch





## 마리암과 리나 The Guest

| Jordan, Turkey  
| 2017 | 83min | DCP  
| Color | Fiction  
| Arabic | 15세

아시아 프리미어 Asian Premiere

알레포에 살던 리나는 전쟁 중에 가족을 잃은 열 살의 소녀다. 그녀는 갓난아기인 여동생과 이웃인 마리암과 함께 고향을 떠나 터키로 향한다.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리나, 어떻게든 유럽으로 가야 하는 마리암이 이스탄불에 도착했을 때는 또 다른 난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대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고군분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잔혹하고 냉담한 현실 속에서 삶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다.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다면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마리암과 리나가 난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리아 난민이 느끼는 감정과 그들이 마주한 가혹한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Lena is a ten-year-old girl who has lost her family in the war. She finds herself forced to make her way to Turkey with her baby sister and their neighbor Meryem, along with the other refugees. What Lena really wants is to return home, while Meryem's hope is to reach Europe. They arrive in Istanbul only to face new challenges. Their efforts to survive in the big city with all its cruelty and coldness, give us hope nonetheless. What if war break out in your country tomorrow? What would you do? While showing Meryem and Lena overcoming the hurdles of a big city in a foreign country and becoming heroines of their story, this movie will enable people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Syrian refugees' feelings and the harsh reality they face every day.

2017 말뚝아람영화제 | 2017 안탈리아국제영화제 - 관객상

서울 Seoul 6.3(Sun) 20:00  
6.6(Wed) 14:00 AC

부산 Busan 6.1(Fri) 18:20  
6.6(Wed) 16:20

안다츠 하즈네다로울루는 모스크바 연극예술아카데미(GITIS)의 예술경영 워크숍을 이수하였고 이후 아나톨루대학교에서 극작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녀는 20년 동안, 다수의 터키 TV시리즈를 연출하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6월의 밤>과 <입술에서 심장까지>, <은하수> 등의 극본을 썼다. 장편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 <사랑을 위한 모든 것>(2016)으로 감독 데뷔를 했으며, 2004년에는 안닥필름프로덕션을 설립하였다. 현재, 이스탄불빌기대학교와 예디테페대학교에서 연기 연출을 가르치고 있다.

Andaç Haznedaroğlu attended GITIS Acting Stage Management Workshop in Moscow. Her master degree is in Dramaturgy at Anadolu University. During her television and cinema career over twenty years, she has directed many TV series in Turkey. Haznedaroğlu is an author of several hit TV dramas like *June Night*, *From Lips to Heart*, *Samanyolu* and etc. She made her feature film debut in the romantic comedy *Everything for Love* (2016). In 2004, Andaç Haznedaroğlu founded her own production company Andac Film Productions. She is also a lecturer on Directing For Talent at Istanbul Bilgi University and Yeditepe University.

감독 Director  
안다츠 하즈네다로울루  
Andaç Haznedaroğlu





## 바람이 데려다줄 거야 Tramontane

| Lebanon, France, Qatar, UAE  
 | 2016 | 105min | DCP  
 | Color | Fiction  
 | Arabic | 12세

한국 프리미어 Korean Premiere

레바논의 작은 마을에 사는 시각장애인 라비는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고 점자 문서를 편집하며 생계를 이어간다. 그러던 어느 날, 공연을 위해 여권 신청을 하러 갔다가 평생 갖고 다녔던 신분증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세상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라비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레바논 시골 지역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각자 나름의 사연을 지닌 이들은 라비에게 다채로운 질문거리를 들려주며 그의 정체에 대한 단서를 준다. 존재의 의미를 좇으며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힌 라비는 자신의 서사가 레바논의 역사와 겹쳐져 있음을 깨닫는다.

Rabih, a young blind man, lives in a small village in Lebanon. He sings in a choir and edits Braille documents for an income. His life unravels when he tries to apply for a passport and discovers that his identification card, which he has carried his entire life, is a forgery. Traveling across rural Lebanon in search of a record of his own birth, he meets people on the far fringes of society who tell their own stories, open further questions and give Rabih minor clues about his true identity. Descending into a void at the heart of his existence, Rabih encounters a nation incapable of telling his or its own narrative.

2016 두바이국제영화제 - 여우주연상 | 2016 칸영화제 - 비평가 주간 황금 레일상

서울 Seoul 6.2(Sat) 20:00  
 6.6(Wed) 11:30

부산 Busan 6.4(Mon) 14:30  
 6.6(Wed) 18:10

레바논 출신의 파트체 볼구르지안은 방송용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중동 곳곳을 누볐으며, 다수의 단편영화와 실험영화, 다큐멘터리를 연출하였다. 이후 뉴욕대학교에서 석사 졸업작품으로 만든 <피프스 칼럼>은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의 제작지원작으로 선정되었고, 2010년 칸영화제 시네파운데이션 부문에서 최초 상영되어 3등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장편 데뷔작 <바람이 데려다줄 거야>는 2016년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장편 경쟁부문에서 프리미어로 상영하였다.

Vatche Boulghourjian is a Lebanese filmmaker. He holds an MFA from New York University's Graduate Film Program. Before attending NYU, Boulghourjian worked throughout the Middle East on documentaries for television while also independently making shorts, experimental films, and documentaries. *Fifth Column*, his thesis film, received a production grant from the Hollywood Foreign Press Association and in 2010 premiered at the Cannes, as part of the Cinéfondation's Selection, where it was awarded Third Prize. Boulghourjian's first feature *Tramontane* was selected to premiere in the feature film competition of the Critic's Week in the Cannes 2016.

감독 Director  
 파트체 볼구르지안  
 Vatche Boulghourjian





## 죽음을 떠나는 남자 Until the End of Time

| Algeria  
| 2017 | 94min | DCP  
| Color | Fiction  
| Arabic | 12세

아시아 프리미어 Asian Premiere

죽은 자의 영혼을 돌보는 시디 불렉부르(Sidi Boulekbour) 묘지의 사람들은 고인을 기리는 이슬람교 연례행사, 지아라(Ziara)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린다.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70세 묘지기 알리는 올해 지아라가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조하르가 언니의 묘지를 찾아오면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언니의 곁에 잠들고 싶다며 죽음을 맞이하기도 전에 자신의 장례를 치르기로 결심한 조하르와 준비를 묵묵히 돕는 알리. 그들은 3일간의 순례 과정 동안 서로에게 끌리게 되지만 조하르는 자신의 나이에 이러한 감정이 사치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죽음을 기리는 이 장소에도 생의 기운이 들어서기 시작한다.

At Sidi Boulekbour, the marabout watching over the dead souls, life goes on. The faithfuls wait for the Ziara, time of the year during which the families come to visit their dead ones. For Ali, the seventy-year-old self-effaced gravedigger, this Ziara was not supposed to be different from any other, but this time Joher arrives to visit her sister's grave. Wanting to rest beside her sister, Joher, decides to organize her own funeral alone before her death. During her three days of pilgrimage, Ali and Joher learn to discover each other timidly. But Joher is reluctant to let herself go to this new feeling at her age. The cemetery becomes the theater of a platonic love story; bringing life to this place of death.

2017 두바이국제영화제 | 2017 카이로여성영화제

서울 Seoul 6.1(Fri) 11:30  
6.4(Mon) 17:30

부산 Busan 6.1(Fri) 14:30  
6.6(Wed) 20:20

1982년 알제리에서 태어난 야스민 슈위크는 2004년, 일간지 「로망띠크(l'Autentique)」의 문화 전문기자로 근무하였고, 2005년에는 알제리공영방송국 EPTV에 합류해 영화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연출작으로는 단편영화 <더 도어>(2006)와 <더 드진>(2010), TV시리즈 <스튜디오 27>(2015) 등이 있다. 알제리 여성감독 야미나 바쉬르가 연출한 <원스 어폰 어 타임, 더 카스바>에는 제작자로 참여하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알제리 타그히트국제단편영화제의 예술감독을 역임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알제리 오란에서 개최되는 국제아랍영화제의 프로그래머로 활동하였다. <죽음을 떠나는 남자>는 그녀의 첫 장편 연출 데뷔작이다.

Born in 1982 in Algiers, Yasmine Chouikh worked as a cultural journalist in a daily newspaper *l'Autentique* in 2004 and in 2005 she joined the Algerian National television, EPTV hosting a program about cinema. She directed two short films, *The Door* in 2006 and *the Djinn* in 2010 and a TV series *Studio 27* in 2015. She produced a set of 8 short films *Once upon a time, the Casbah* directed by Yamina Bachir. She was the art director of the Taghit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Algeria) from 2009 to 2012. She was in charge of short films at the International Arab Film Festival of Oran, Algeria from 2008 to 2011. *Until the End of Time* is her first feature film.

감독 Director  
야스민 슈위크  
Yasmine Chouikh





## 와지브 Wajib

| Palestine, France, Germany,  
Colombia, Norway, Qatar, UAE  
| 2017 | 96min | DCP  
| Color | Fiction  
| Arabic | 12세

아부 샤디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의 교사다. 그는 오래 전 이혼한 전력이 있고, 한 달 후에 있을 딸의 결혼식이 끝나면 정말로 혼자 살게 될 것이다. 한편, 건축가인 그의 아들 샤디는 팔레스타인의 지역 풍습에 따라 청첩장을 일일이 전달하려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몇 년 만에 로마에서 돌아온다. 오랜만에 만나 서먹서먹한 부자는 온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두 사람 사이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이 사는 서로 다른 세상은 부서질 듯 흔들리기 시작한다.

Abu Shadi is a divorced father and a school teacher in his mid-60s living in Nazareth. After his daughter's wedding in one month he will be living alone. Shadi, his architect son, arrives from Rome after years abroad to help his father in hand delivering the wedding invitations to each guest as per local Palestinian custom. As the estranged pair spends the day together, the tense details of their relationship come to a head challenging their fragile and very different lives.

2017 두바이국제영화제 - 최우수 무흐르 장편영화상, 남우주연상 | 2017 토론토국제영화제

서울 Seoul 6.1(Fri) 20:00  
6.4(Mon) 14:00

부산 Busan 6.3(Sun) 19:50  
6.5(Tue) 20:20

팔레스타인 출신의 안느마리 자시르의 총 16편이 넘는 작품에 작가, 감독, 제작자로 참여하였다. 아랍권 단편영화 최초로 칸영화제에 진출한 <구제불능 심대들처럼>(2003)은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에도 올랐으며, <이방인>(2008)은 칸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에서 상영되었다. <내가 너를 보았을 때>(2012)는 베를린국제영화제 최우수아시아작품상과 아부다비영화제 최우수아랍영화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상을 받았으며, 이 영화는 제작스태프가 모두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랍권에서 모든 투자를 이끌어 낸 것으로 유명한 작품이다. <와지브>는 그녀의 세 번째 장편 연출작이다.

Palestinian filmmaker Annemarie Jacir has written, directed and produced over sixteen films. Her short film *Like Twenty Impossible* (2003) was the first Arab short film in history to be an official selection of the Cannes. Her second work to debut in Cannes, the critically acclaimed *Salt of this Sea* (2008), garnered fourteen international awards. It was the first feature film directed by a Palestinian woman. *When I Saw You* (2012) won, among other awards, Best Asian Film at the 63rd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Best Arab Film in Abu Dhabi Film Festival. The film's production was entirely Arab financed with all Palestinian producers. *Wajib* is her third feature film.

감독 Director

안느마리 자시르  
Annemarie Jacir





## 자그로스 Zagros

| Belgium, The Netherlands  
| 2017 | 95min | DCP  
| Color | Fiction  
| Kurdish, Dutch | 15세

젊은 양치기, 자그로스는 임신한 아내 하빈과 소중한 딸과 함께 쿠르드 마을에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버지는 하빈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한다. 자그로스는 아내를 믿기 때문에 흘려 듣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가족들이 하빈을 집에 가둬두고 추궁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자그로스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내와 딸은 가족들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이미 벨기에로 떠난 상태다. 하빈이 결백하다는 것, 그리고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은 자그로스는 벨기에로 밀입국을 시도한다. 천신만고 끝에 아내와 딸을 다시 만난 자그로스. 하지만 그의 마음에 자리 잡힌 의심의 싹은 건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Zagros is a young shepherd who lives in a Kurdish village with his pregnant wife Havin and their daughter. His father tells him that people gossip about Havin: There are rumours of her having an affair. Zagros brushes his father's concerns away as he trusts his wife. Later, Zagros learns that his family have accused Havin of adultery and locked her up. He returns to his village but finds his wife and daughter gone. Havin has fled to Belgium with their daughter. Convinced of her innocence and confident that they can build a new life together, Zagros smuggles himself to the West to join them. But the poisonous seeds of doubt regarding Havin's fidelity in Zagros' mind grow beyond his control.

2017 두바이국제영화제 | 2017 로테르담국제영화제

서울 Seoul 6.2(Sat) 17:30  
6.4(Mon) 11:30

부산 Busan 6.2(Sat) 20:30  
6.4(Mon) 16:40

쿠르드 감독 사힘 오마르 칼리파는 브뤼셀에서 영화 공부를 하였다. 졸업작품인 <난>(2008)으로 플랜더스시청각펀드 최우수작품상을 거머쥐었고,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한 단편 <영웅들의 땅>(2010)은 2011년 베를린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Kplus 부문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연이어 연출한 두 편의 단편 <바그다드 메시>(2012)와 <배드 헌터>(2014) 역시 국내외 우수 영화제로부터의 초청을 받았으며, 아카데미상 후보로 오르는 영예를 얻었다. 그는 단편 연출작으로 총 250개 영화제에 초청되었으며 97개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자그로스>는 그의 장편 데뷔작이다.

Kurdish director Sahim Omar Kalifa studied film in Brussels. His graduation film *Nan* (2008) won a wild card contest, enabling him to write and direct the professional short *Land of the Heroes* (2010), which earned him a jury award at the Berlinale in 2011(Generation Kplus). Both his subsequent shorts *Baghdad Messi* (2012) and *Bad Hunter* (2014) were festival darlings as well and ended up being short-listed for the Academy Awards. Sahim's shorts were selected for 250 festivals and took home a total of 97 international festival awards. *Zagros* is his first feature length project.

감독 Director  
사힘 오마르 칼리파  
Sahim Omar Kalifa



# 포커스 2018: 일어서다, 말하다, 외치다

## Focus 2018: Rise Up, Speak Out

아랍영화제는 올해 특별섹션인 '포커스 2018: 일어서다, 말하다, 외치다'를 통해 동시대 아랍의 여성들의 목소리에 주목한다.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미투 운동'의 바람이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부당한 폭력과 억압들을 수면위로 드러나게 하고 사회를 바꾸는 것을 목격했다. 아랍의 여성들 역시 이슬람에 대한 오해와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발언권을 갖지 못하기도 했다. 그 동안 매해 아랍영화제는 조혼으로 교육의 기회를 잃은 여성, 혁명시기에 여성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에 대한 억압, 남성중심의 스포츠세계 속 아랍여성들, 자신만의 커리어를 가진 유능한 여성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이야기 등 아랍의 다양한 여성 캐릭터를 소개하고 현재 그들이 겪는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 다루었다.

시대가 바뀌고 있듯이 올해 '포커스 2018: 일어서다, 말하다, 외치다'에서는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그 동안 억압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은폐됐던 성폭력을 고발하고 일상이 된 여성혐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자유로운 삶과 발언권을 박탈당해 온 여성의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 튀니지 여성의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삶을 하룻밤에 일어난 사건으로 폭로하는 2017년의 문제작 <뷰티 앤 더 독스>, 혐오범죄를 추적해 나가며 여성에 대한 반감과 적대심의 실체를 확인하는 <튀니지의 살라>, 종교적 극단주의에 대해 시를 통해 이야기하는 여성에 대한 다큐멘터리 <그녀는 시를 쓴다> 등 3편의 영화에서 우리는 존엄과 권리에 눈뜨고, 부당함을 말하고, 시대의 변화를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한 <뷰티 앤 더 독스>, <튀니지의 살라>의 감독 카우테르 벤 하니아 감독이 참석하여 자신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아랍 여성들의 변화를 위한 움직임에 대해 들려줄 것이다.

This year, ARAB Film Festival presents a special section, "Focus 2018: Rise Up, Speak Out" to pay attention to contemporary Arab women's voices. We have witnessed how the global phenomenon of social media campaign called #MeToo has changed our society by unveiling the hidden violence against and repression of women. Social inequality and the consequent misconceptions about women often force Arab women to hide themselves behind the veils without the right to speak. ARAB Film Festival has been introducing diverse women characters and addressing current challenges facing them by featuring films about women who lost the chance for higher education due to early marriage; who live under repression without being able to make a political statement or contribution during the age of revolution; who survive in a male-dominated sports world; and who become the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despite their social position as a talented woman with a brilliant career.

As the world changes, this year in "Focus 2018: Rise Up, Speak Out" we aim to take one more bold step forward by calling attention to sexual violence hidden for the sake of the social oppression and maintaining the system; challenging misogyny that creeps into our everyday lives; and raising voices to unveil the reality where women are constrained and silenced by isolation.

This section features a total of three films: *Beauty and the Dog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films of 2017 that addresses the unacceptable reality of Tunisian woman facing inequality and repression in an episode taking place in one night; *Challat of Tunis* that follows a misogynistic hate crime and reveals the truth behind antipathy and hostility towards women; and *The Poetess*, a documentary about a courageous woman who denounces religious extremism through her poems. By doing so, it intends to invite you to listen to the voices of women who dare to open their eyes and speak up so that they could keep their dignity intact, claim their rights, address what is wrong and unfair, and eventually call for change.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Kaouter Ben Hanïa, the director of *Beauty and the Dogs* and *Challat of Tunis* will attend the festival to discuss her films in depth as well as Arab women's movement calling for change.



## 뷰티 앤 더 독스 Beauty and the Dogs

| Tunisia, France, Sweden,  
Norway, Lebanon, Qatar,  
Switzerland  
| 2017 | 100min | DCP  
| Color | Fiction  
| Arabic | 15세

튀니지의 젊은 여성인 마리암은 어느 학생 파티에서 유수프를 알게 되고, 그에게 어딘가 의문스러운 점이 있음에도 결국엔 그를 따라 나서기로 한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되찾기 위한 그녀의 지난한 투쟁이 시작된다. 가해자의 편에서 있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During a student party, Mariam, a young Tunisian woman, meets the mysterious Youssef and leaves with him. A long night will begin, during which she'll have to fight for her rights and her dignity. But how can Justice be made when it lies on the side of the tormentors?

2017 두바이국제영화제 | 2017 칸영화제

서울 Seoul 6.2(Sat) 14:00 OP  
6.4(Mon) 19:30 QA

부산 Busan 6.3(Sun) 14:30 QA  
6.5(Tue) 1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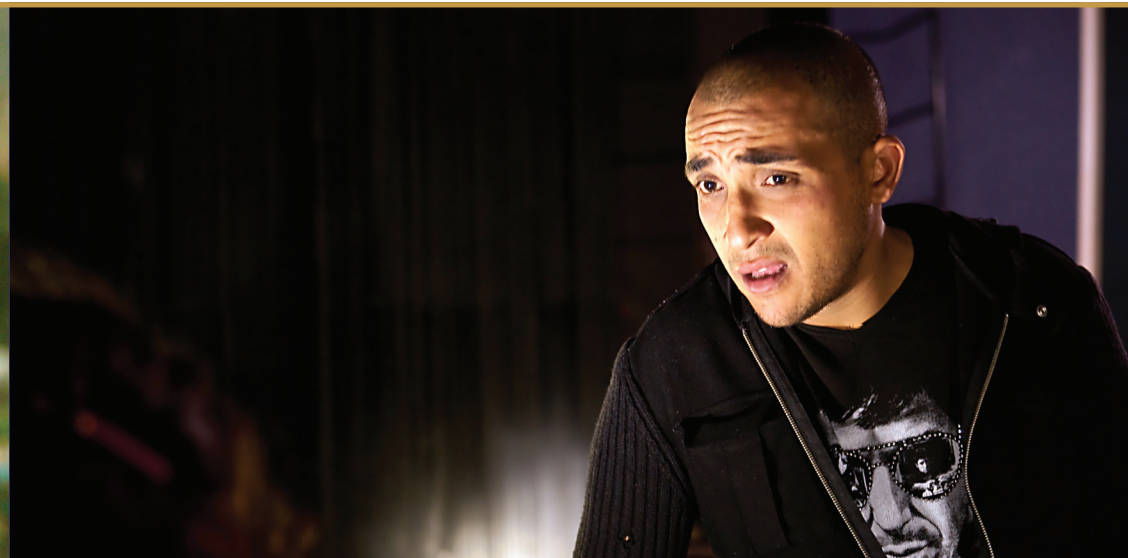
카우테르 벤 하니아 감독은 튀니지 영화학교인 EDAC에서 공부를 한 후 파리 소르본과 라 페미스에서 영화를 전공하였다. 단편 <나, 나의 동생>(2006), <우든 핸드>(2013) 등이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초청받았다. 2014년,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촬영한 첫 번째 극영화 <튀니지의 살라>는 칸영화제 등에 초청되었으며, 벤 하니아는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여성감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아이맘스 고 투 스쿨>(2010), <자이넨은 눈을 싫어해>(2016) 등을 발표하였고, <뷰티 앤 더 독스>(2017)는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두바이국제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Kaouter Ben Hania studied cinema at the Sorbonne and La Fémis in Paris, France after enrolling in Ecole des Arts et du Cinéma (EDAC) in Tunisia. She directed several short films including *Me, My Sister and the Thing* (2006) and *Wooden Hand* (2013) that had a successful and long run on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ircuit. In 2014, as her first feature film, *Challat of Tunis*, shot in a documentary style was chosen for the official selection of the Cannes, she became one of the most globally recognized women directors. Her other works include *Imams Go to School* (2010), *Zaineb Hates the Snow* (2016), and *Beauty and the Dogs* (2017) which received positive reviews from numerous renowned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such as the Cannes (Un Certain Regard) and Dub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감독 Director  
카우테르 벤 하니아  
Kaouter Ben Hania







## 튀니지의 살라 Challat of Tunis

| Tunisia, France, Canada,  
Qatar, UAE  
| 2014 | 90min | DCP  
| Color | Fiction  
| Arabic | 15세

오토바이에 탄 한 남자가 손에 면도날을 들고 튀니스의 거리를 배회하며 여성의 엉덩이를 벤다. 사람들은 그를 “살라(Challat),” 즉, 타인을 해치는 사람이라는 뜻의 “슬래셔(Slasher)”라 부르고, 그의 이름만 들어도 매혹과 공포를 동시에 느낀다. 그는 외로운 범죄자인가? 도시의 전설인가? 아니면 정치단체나 종교광신도의 산물인가? 그 일이 있고 난지 10년, ‘아랍의 봄’의 여파 속에서, 어느 젊고 고집 센 여성감독이 살라의 정체와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A man on a motorbike, razor blade in hand, prowls the streets of Tunis slashing women’s buttocks. They call him The Challat, aka “The Slasher”, and the mere mention of his name provokes fascination and terror. Is he a lone criminal, an urban legend, or could he be the creation of a political group or religious fanatics? 10 years later, in the aftermath of the Arab Spring, a stubborn young female director sets out on an investigation to unravel the mystery and discover the true Challat of Tunis...

2014 두바이국제영화제 | 2014 칸영화제 ACID 부문

서울 Seoul 6.3(Sun) 11:30  
6.5(Tue) 17:30

부산 Busan 6.2(Sat) 13:00  
6.4(Mon) 20:30

카우테르 벤 하니아 감독은 튀니지 영화학교인 EDAC에서 공부를 한 후 파리 소르본과 라 페미스에서 영화를 전공하였다. 단편 <나, 나의 동생>(2006), <우든 핸드>(2013) 등이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초청받았다. 2014년,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촬영한 첫 번째 극영화 <튀니지의 살라>는 칸영화제 등에 초청되었으며, 벤 하니아는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여성감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아이맘스 고 투 스쿨>(2010), <자이넨은 눈을 싫어해>(2016) 등을 발표하였고, <뷰티 앤 더 독스>(2017)는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두바이국제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Kaouther Ben Hania studied cinema at the Sorbonne and La Fémis in Paris, France after enrolling in Ecole des Arts et du Cinéma (EDAC) in Tunisia. She directed several short films including *Me, My Sister and the Thing* (2006) and *Wooden Hand* (2013) that had a successful and long run on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ircuit. In 2014, as her first feature film, *Challat of Tunis*, shot in a documentary style was chosen for the official selection of the Cannes, she became one of the most globally recognized women directors. Her other works include *Imams Go to School* (2010), *Zaineb Hates the Snow* (2016), and *Beauty and the Dogs* (2017) which received positive reviews from numerous renowned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such as the Cannes (Un Certain Regard) and Dub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감독 Director

카우테르 벤 하니아  
Kaouther Ben Hania





## 그녀는 시를 쓴다 The Poetess

| Saudi Arabia, Germany  
| 2017 | 88min | DCP  
| Color, B&W | Documentary  
| Arabic, English, French | 12세

아시아 프리미어 Asian Premiere

히사 할랄은 베일 안의 목소리다. 그녀의 언어는 무기가 된다. 아부다비의 TV쇼이자 아랍권 최대의 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남성 출연자가 대부분인 <밀리언즈 포엣>. 독학으로 작가가 되었으며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말하는 여성 히사 할랄은 이 쇼에 출연한 것만으로도 화제가 된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시를 통해 가부장적인 아랍 사회를 비판하며 프로그램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오른다. 하지만 우리는 프로그램 내내 히사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대부분의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목숨을 걸고 무대 위에 나와 자신의 언어로 사회를 비판할 용기는 과연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 이것은 히사의 이야기이다.

Hissa Hilal is the voice from behind the veil: Her weapon is her word. Hissa is a self-taught writer and she says what she thinks. She decides to take part in the *Million's Poet* show, an Abu-Dhabi based Multi-Million Dollar TV show. It is the Arab world's biggest poetry competition, and it is dominated by men. Hissa works herself up, becoming the first woman in the finals. In her poems she criticizes the patriarchal Arab society. We'll never see Hissa's face. Like the majority of Saudi women, Hissa is covered from head to toe. How did she gain the knowledge and the courage to step on stage and risk her life? This is Hissa's story.

2017 로카르노국제영화제 | 2017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서울 Seoul 6.1(Fri) 14:00  
6.6(Wed) 17:30

부산 Busan 6.1(Fri) 16:30  
6.3(Sun) 18:00

스테파니 브로크하우스는 독일 뮌헨 출신의 독립영화감독이다. 2002년에 런던예술대학교 칼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 영화방송학과를 졸업하였고, 2016년에는 뮌헨영화학교에서 다큐멘터리연출을 전공하였다. 장편 연출작으로는 안드레아스 볼프와 공동 연출한 <인생의 건너편>(2010)과 <그녀는 시를 쓴다>(2017),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들>(2017) 등이 있다.

Stefanie Brockhaus is an independent filmmaker from Munich, Germany. In 2002 Stefanie graduated from London College of Communications, University of the Arts with a BA in Film and Television. In 2016 Stefanie received her diploma in documentary directing from the Munich University of Television and Film. Her feature directed films are *On the Other Side of Life* (2010) and *The Poetess* (2017) which she co-directed with Andreas Wolff, and *Some Things are Hard to Talk About* (2017).

안드레아스 볼프는 LA의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영화예술대학원에 재학하였고, 2016년에는 뮌헨영화학교를 졸업하였다. 다큐멘터리 데뷔작은 스테파니 브로크하우스와 공동 연출한 <인생의 건너편>이다. 이 작품은 2010년 밀라노국제영화제, 룬다국제영화제, 캄덴국제영화제 등에서 수상했으며, 브로크하우스와 함께 차세대 감독상을 두 번이나 거머쥐었다. 브로크하우스와 공동 연출한 다큐멘터리 <그녀는 시를 쓴다>는 2017년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프리미어로 상영하였다.

Andreas Wolff enrolled at USC's Graduate School of Cinematic Arts in Los Angeles. He continued his studies at HFF University for TV and Film Munich. His documentary debut *On the Other Side of Life*, which he co-directed with Stefanie Brockhaus, won Main Feature Film Awards at Milan, Ronda and Camden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The same year Wolff and Brockhaus also won two emerging director awards. *The Poetess* which he co-directed with Stefanie Brockhaus will premiere at Locarn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2017.

감독 Director  
스테파니 브로크하우스  
Stefanie Brockhaus



안드레아스 볼프  
Andreas Wolff





## 프로그램 이벤트 Program Events

### 오픈 토크: 일어서다, 말하다, 외치다 Open Talk: Rise Up, Speak Out



2018년 한국사회는 혐오와 차별, 성폭력에 맞서는 여성들의 목소리로 인하여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랍사회 역시 여성들 스스로 억압과 금기에 대항하여 목소리를 내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이번 특별 섹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7회 아랍영화제는 그런 변화의 목소리의 선봉에 서서 영화를 만드는 카우테르 벤 하니아 감독을 초청하여 일어서서 말하고 외치는 여성의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In 2018, Korean society is experiencing the waves for changes led by women who rise up against misogyny, discrimination, and sexual violence. Likewise, Arab women have been making their voices heard in the fight against oppression and tyranny as well as taking the initiative to change the society, which will be addressed in our special section called "Rise Up, Speak Out". The 7th ARAB Film Festival will offer you a meaningful opportunity to meet in person Kaouther Ben Hania who has been on the frontline of such movement and to have an in-depth discussion on women who dare to rise up and speak out.

- 일시 Date & Time** 6.2(Sat) 14:00 <뷰티 앤 더 독스> 상영 후 After screening *Beauty and the Dogs*
- 장소 Venue** 아트하우스 모모 1관 Arthouse MOMO 1
- 사회 Moderator** 손희정 (영화평론가) Jay SOHN (Cultural Critic)
- 게스트 Guest** 카우테르 벤 하니아 (감독) Kaouther Ben Hania (Director of *Beauty and the Dogs*, *Challat of Tunis*)



## 프로그램 이벤트 Program Events

### 아라비안 시네토크 Arabian Cine-Talk

장소 Venue 아트하우스 모모 1관 Arthouse MOMO 1

#### 아라비안 시네토크 1 Arabian Cine-Talk 1



6.3 (Sun) 14:00

<오직 남자들만 무덤으로 간다> 상영 후 after screening *Only Men Go to the Grave*

#### 여성의 연대, 화해 그리고 치유 Women's Solidarity, Healing, and Reconciliation

모더레이터 Moderator 이화정 (씨네21, 기자) Hwajung LEE (Journalist of *Cine21*)

게스트 Guest 부지영 (영화감독) Ji-young BOO (Film Director)

#### 아라비안 시네토크 2 Arabian Cine-Talk 2



6.5 (Tue) 19:30

<라지아> 상영 후 after screening *Razzia*

#### 나빌 아우크와 아랍 영화 Nabil Ayouch and Arab Films

게스트 Guest 정한석 (영화평론가) Hanseok JUNG (Film Critic)

#### 아라비안 시네토크 3 Arabian Cine-Talk 3



6.6 (Wed) 14:00

<마리암과 리나> 상영 후 after screening *The Guest*

#### 난민, 그 이후의 삶과 공존 Life and Coexistence after Experiencing Refugee

모더레이터 Moderator 박은진 (프로그램머) Eunjin PARK (Programmer)

게스트 Guest 김혜경 (국경없는 기자회 한국특파원) Hyekeong KIM (South Korea Correspondent, Reporters Without Borders)

### 관객과의 대화 QA in Seoul and Busan

서울 SEOUL	<b>일시 Date &amp; Time</b>	6.4 (Mon) 19:30 <뷰티 앤 더 독스> 상영 후 After screening of <i>Beauty and the Dogs</i>
	<b>게스트 Guest</b>	카우테르 벤 하니아 (감독) Kaouther Ben Hania (Director)
	<b>모더레이터 Moderator</b>	박은진 (프로그램머) Eunjin PARK (Programmer)
부산 BUSAN	<b>일시 Date &amp; Time</b>	6.3 (Sun) 14:30 <뷰티 앤 더 독스> 상영 후 After screen of <i>Beauty and the Dogs</i>
	<b>게스트 Guest</b>	카우테르 벤 하니아 (감독) Kaouther Ben Hania (Director)
	<b>모더레이터 Moderator</b>	옥미나 (영화평론가) OAK Mina (Film Critic)



## 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 서울 Seoul

### 예매 안내 Ticket Info

티켓 문의 For ticket inquiries, contact : 02-3272-4557

티켓 가격 Ticket Price	5,000원 KRW 5,000	
온라인 Online Booking	5.16(수) 14:00 - 6.6(수) May 16(Wed) 14:00 - June 6(Wed)	아트하우스 모모 홈페이지, 인터파크, YES24 Arthouse MOMO website, INTERPARK, YES24
현장 매표소 Onsite Office	6.1(금) - 6.6(수) June 1(Fri) - 6(Wed)	10:30 - 20:10 아트하우스 모모 티켓 부스 At the box office of Arthouse MOMO

- 한 영화당 1인 4매까지 예매가 가능합니다(온라인, 현장 동일).
- 티켓 분실 및 파손된 경우에 재발행은 불가하오니 보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You can purchase up to 4 tickets per screening(both for online and onsite booking).
-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keep your ticket safe and undamaged as a replacement ticket will not be issued.

### 취소 환불 안내 Cancel & Refund

취소 가능 일시 Free Cancellation	해당 영화 상영 20분전까지(온라인, 현장 동일) Free of charge up to 20 minutes before the film begins(both for online and onsite bookings)	
취소 수수료 Cancellation Charges	온라인 예매 취소 시 취소 수수료 1,000원 부가 KRW 1,000 cancellation charge for the cancellation of tickets online	
환불 규정 Refund Policy	해당 영화 상영 20분전까지 전액 환불, 상영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Full refund available up to 20 minutes before the film begins & no refund once the film begins	

- 온라인 예매 후 발권한 표는 매표소에서만 취소 가능합니다.
- 예매 후 부분취소는 불가합니다(3매 예매 후 1매만 부분 취소할 경우에도 3매를 모두 취소하고 2매를 다시 예매해야 합니다).

- Once your ticket is booked online and issued, you must visit the box office in person to cancel it.
- A partial cancellation is not allowed(if you want to cancel only one out of three purchased tickets, you must cancel all three and then, re-book two).

### 상영관 운영안내 Theater Info

- 정시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영관 입장은 상영 10분 전부터 가능하며, 상영 시작 10분 뒤에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므로 꼭 본인좌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영 시작 후 입장 시 지정좌석이 보장되지 않으며 상영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화 상영 중 이동 및 재입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영관 입장은 영화의 관람등급에 따라 엄격히 통제됩니다. 만 7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동반 하에도 입장 및 관람 할 수 없습니다.
- 쾌적한 영화관람을 위하여 음료를 포함한 음식물 반입은 제한됩니다.
- 영화 상영 중 사진 및 비디오 촬영(휴대전화, 카메라 등)은 불가합니다.

- It is our policy that the film begins on time. You will be able to enter the theater 10 minutes before the film begins. If you are more than 10 minutes late, you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 Since the seats are reserved, please sit on your assigned seat.
- Your seat will not be guaranteed and our staff member will show you an empty seat once the film begins.
- You are highly discouraged to move around or re-enter the theater during the screening.
- Age restrictions on films will be strictly enforced.
- Children aged 7 and less are not allowed to enter even when accompanied by their parents or guardians.
- No food or drinks are allowed to maintain the area clean during the screening.
- Any unauthorized audio and video recordings of a film(using electronic devices such as cell phone and camera) are prohibited by law.

### 관람등급 안내 Film Ratings

전체관람가(전체) | 12세이상관람가(12세) | 15세이상관람가(15세) | 18세이상관람가(18세)  
General audiences (G) | 12 and over (12+) | 15 and over (15+) | 18 and over (18+)



## 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 부산 Busan

### 예매 안내 Ticket Info

티켓 문의 For ticket inquiries, contact : 051-780-6080

티켓 가격 Ticket Price	5,000원, 영화의전당 유료회원 4,000원 KRW 5,000, KRW 4,000 exclusively for paid members of Busan Cinema Center	
온라인 Online Booking	5.16(수) 09:00 - 6.6(수) May 16(Wed) 09:00 - June 6(Wed)	영화의전당 홈페이지(www.dureraum.org) Busan Cinema Center website(www.dureraum.org)
현장 매표소 Onsite Office	6.1(금) - 6.6(수) June 1(Fri) - 6(Wed)	09:00 - 마지막 상영 시작까지 6층 매표소 09:00 - Right before the last film of the day begins At the box office on the 6th floor

- 티켓 분실 및 파손된 경우에 재발행은 불가하오니 보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keep your ticket safe and undamaged as a replacement ticket will not be issued.

### 취소 환불 안내 Cancel & Refund

취소 가능 일시 Free Cancellation	온라인: 해당 영화 상영 20분전까지 현장 매표소: 상영시작 직전까지 Online: Free of charge up to 20 minutes before the film begins Box Office: Free of charge right before the film begins	
취소 수수료 Cancellation Charges	취소 수수료 없음(온라인, 현장 동일) No cancellation fees(both for online and onsite bookings)	
환불 규정 Refund Policy	해당 영화 상영 20분전까지 전액 환불, 상영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Full refund available up to 20 minutes before the film begins & no refund once the film begins	

- 온라인 예매 후 발권한 표는 현장 매표소에서만 취소 가능합니다.
- 예매 후 부분취소는 불가합니다(3매 예매 후 1매만 부분 취소할 경우에도 3매를 모두 취소하고 2매를 다시 예매해야 합니다).
- Once your ticket is booked online and issued, you must visit the box office in person to cancel it.
- A partial cancellation is not allowed(if you want to cancel only one out of three purchased tickets, you must cancel all three and then, re-book tw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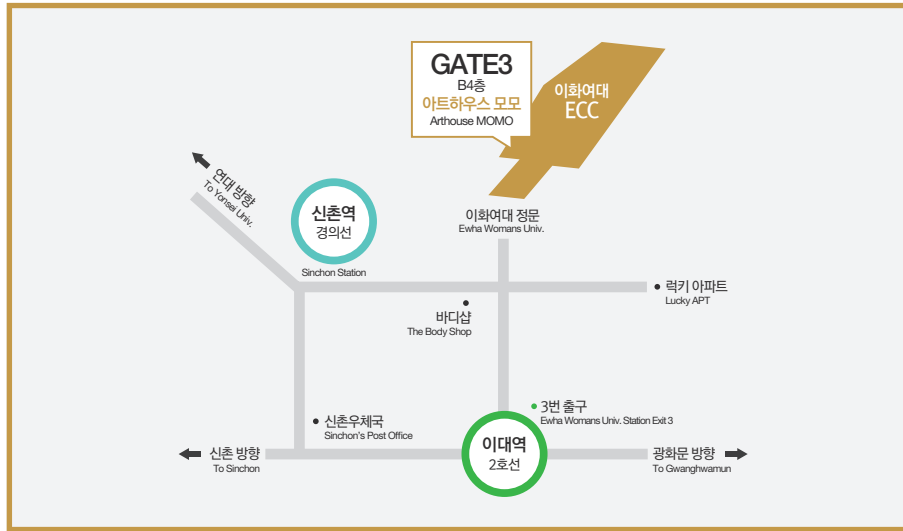
### 상영관 운영안내 Theater Info

- 정시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영관 입장은 상영 10분 전부터 가능하며, 상영 시작 10분 뒤에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므로 꼭 본인좌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화 상영 중 이동 및 재입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영관 입장은 영화의 관람등급에 따라 엄격히 통제됩니다. 어린이와 동반 관람하시는 경우 타인의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제 부탁드립니다.
- 영화 상영 중 사진 및 비디오 촬영(휴대전화, 카메라 등)은 불가합니다.

- It is our policy that the film begins on time. You will be able to enter the theater 10 minutes before the film begins. If you are more than 10 minutes late, you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 Since the seats are reserved, please sit on your assigned seat.
- You are highly discouraged to move around or re-enter the theater during the screening.
- Age restrictions on films will be strictly enforced.
- When accompanying children, their parents or guardians must provide them with proper guidance not to disturb other audiences.
- Any unauthorized audio and video recordings of a film(using electronic devices such as cell phone and camera) are prohibited by law.



## 상영관 안내 Theater Information | 서울 Seoul



### 아트하우스 모모 Arthouse MOMO

이화여자대학교 ECC B402 (ECC 3번 출구 이용)  
B402(ECC gate 3), Ewha Campus Complex, Ewha Womans Univ. TEL 02-363-5333

### 지하철 Subway

2호선 이대역 3번 출구 300m 직진  
Ewha Womans Univ. Station (Line 2) Exit No. 3, 5 minutes walk from the exit

### 버스 Bus

**BLUE** 153, 163, 171, 172, 270, 271, 273, 472, 602, 603, 721, 751  
**GREEN** 5712, 5713, 5714, 6712, 7011, 7017, 7611, 7712, 7713  
**RED** 1301, 9600, 9713, 9706, 9708, 1101, 1600, 9602, 1000, 1200, 1300, 1400, 1500, 1600, 1601

### 주차 안내 Parking

- 이화여자대학교 지하주차장 이용, 극장이 위치한 지하4층은 D블록 1번 엘리베이터 이용
- 할인권 4시간 2,000원, 이후 10분당 1,000원 (극장 매표소에서 주차권을 받은 후 정산소에 제시)
- 2편 이상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에는 극장 매표소에서 종일 주차권(4,000원) 구매
- 이화여대 정문은 평일 22:00, 토요일 20:00에 폐쇄되니 후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휴일과 일요일은 정문이 폐쇄되니 후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CC underground parking lot is available
- Up to 4 hours: KRW 2,000, every 10 minutes thereafter KRW 1,000
- Please receive a validation stamp on both movie ticket and parking ticket at the ticket office of Arthouse MOMO
- If you watch two movies in one day, you can purchase a one-day parking permit for KRW 4,000
- Main gate of Ewha Womans Univ. is closed at 22:00 on weekdays and 20:00 on Saturdays. Please use back gate after then
- Please note that the main gate is closed on Sundays and holidays, so please use the back gate



## 상영관 안내 Theater Information | 부산 Busan



### 영화의전당 Busan Cinema Cente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120, Suyeonggangbyeon-daero, Haeundae-gu, Busan, Korea, TEL 051-780-6080

### 지하철 Subway

2호선 센텀시티 12번, 6번 출구  
Centum City Station (Line 2) Exit No. 6, 10minutes walk from the exit

### 버스 Bus

신세계백화점 하차 Shinseggye Dept. Store stop  
5-1, 36, 39, 40, 63, 115, 139, 141, 155, 181, 307, 1001, 1002

### 주차 안내 Parking

- 지하주차장 이용
- 영화티켓 제시 시 3시간 이내 무료, 이후 30분당 1,000원
- Underground parking lot is available
- Up to 3 hours with ticket: free, every 30 minutes thereafter KRW 1,000

**(재)한국-아랍소사이어티**  
Korea-Arab Society

사무총장 Secretary-General  
김진수 Jin Soo KIM

차장 Senior Manager  
박주혜 Joo-hye PARK

과장 Manager  
김태은 Tae-eun KIM

대리 Assistant Manager  
양나름 Na-reum YANG

사원 Assistant Manager  
서민지 Minji SEO

인턴 Intern  
조유미 Yoomi Cho

**아랍영화제 스태프**  
Festival Staff

집행위원장 Festival Director  
최낙용 Nag Yong CHOI

사무국장 General Manager  
김영미 Young-mi KIM

프로그램머 Programmer  
박은진 Eunjin PARK

프로그래머 코디네이터 Program Coordinator  
김지연 Jiyeon KIM

홍보팀장 Publicity Coordinator  
사아현 Ahhyun SEO

홍보팀 Publicity Officer  
강우희 Woo-hee KANG

상영관 매니저 Theater Manager  
강우희 Woo-hee KANG

트레일러 Trailer  
파라노이드 씬 Paranoid Scene

공식기록 Official Record  
박상준 Sangjoon PARK

영상관리 Projection Technical  
진 미디어 JIN MEDIA

자막번역 Subtitle Translation  
스튜디오210 Studio210

포스터 & 디자인 Poster&Design  
흑석동작업장 Factory H.

프로그램북 번역 Program Book Translation  
최진아 Jinah CHOI

통역 Translator  
김고운 Goun KIM

자원활동가 Volunteer  
송다영 Da Young SONG  
윤유정 Youjeong YUN  
조혜미 Hyemi JO  
최혜원 Hye Won CHOI

**부산 영화의전당**  
Busan Cinema Center

시네마테크팀 Cinematheque Team  
이승진 LEE Seung Jin  
조소라 JO Sora  
정호선 JUNG HeeSun

자막 Subtitle Team  
이철 LEE Chol  
노현경 NOH Hyun Kyung  
이주영 LEE Ju Young

영사 Projection Team  
정진호 JUNG Jin Ho  
김대철 KIM Dae Chul  
오은진 OH Eun Jin  
박영필 PARK Young Phil

고객서비스팀 Customer Service Team  
정명진 JUNG Myung Jin  
조광형 CHO Kwang Hyung  
이영석 LEE Young Seek  
허영환 HEO Young Hwan  
손선정 SON Sun Jung  
유지연 YOO Ji Yeon  
김세희 KIM Se-Hee

# 안락함.

## 오직 두 분만을 위한 공간.



에티하드항공 비즈니스 클래스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애니타임 다이닝 서비스로 원하는 시간에 기내식을 주문해 보세요. 넓은 플랫 베드 좌석에서 숙면을 취해 보세요. 외부 소음이 차단되는 헤드셋으로 최신 영화를 즐기거나, 좌석별로 내장된 전원 포트 및 기내 Wi-Fi 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 서울 Seoul | 아트하우스 모모 1관 Arthouse MOMO 1

	6/1 Fri	6/2 Sat	6/3 Sun	6/4 Mon	6/5 Tue	6/6 Wed
1회 11:30	죽음을 떠나는 남자 Until the End of Time 94'	시리아에서 Insyriated 85'	튀니지의 살라 Challat of Tunis 90'	자그로스 Zagros 95'	선인장 Cactus Flower 103'	바람이 데려다줄 거야 Tramontane 105'
2회 14:00	그녀는 시를 쓴다 The Poetess 88'	뷰티 앤 더 독스 Beauty and the Dogs 100' <b>OP</b>	오직 남자들만 무덤으로 간다 Only Men Go to the Grave 80' <b>AC</b>	와지브 Wajib 96'	오직 남자들만 무덤으로 간다 Only Men Go to the Grave 80'	마리얌과 리나 The Guest 83' <b>AC</b>
3회 17:30	라지아 Razzia 119'	자그로스 Zagros 95'	선인장 Cactus Flower 103'	죽음을 떠나는 남자 Until the End of Time 94'	튀니지의 살라 Challat of Tunis 90'	그녀는 시를 쓴다 The Poetess 88'
4회 20:00	와지브 Wajib 96'	바람이 데려다줄 거야 Tramontane 105'	마리얌과 리나 The Guest 83'	19:30 뷰티 앤 더 독스 Beauty and the Dogs 100' <b>QA</b>	19:30 라지아 Razzia 119' <b>AC</b>	시리아에서 Insyriated 85'

### 부산 Busan | 영화의전당 소극장 Busan Cinema Center Cinema II

	6/1 Fri	6/2 Sat	6/3 Sun	6/4 Mon	6/5 Tue	6/6 Wed
1회	14:30	13:00	14:30	14:30	14:30	14:00
	죽음을 떠나는 남자 Until the End of Time 94'	튀니지의 살라 Challat of Tunis 90'	뷰티 앤 더 독스 Beauty and the Dogs 100'	바람이 데려다줄 거야 Tramontane 105'	오직 남자들만 무덤으로 간다 Only Men Go to the Grave 80'	라지아 Razzia 119'
2회	16:30	14:50	100' <b>QA</b>	16:40	16:10	16:20
	그녀는 시를 쓴다 The Poetess 88'	시리아에서 Insyriated 85'		자그로스 Zagros 95'	뷰티 앤 더 독스 Beauty and the Dogs 100'	마리얌과 리나 The Guest 83'
3회	18:20	16:40	18:00	18:40	18:10	18:10
	마리얌과 리나 The Guest 83'	선인장 Cactus Flower 103'	그녀는 시를 쓴다 The Poetess 88'	시리아에서 Insyriated 85'	선인장 Cactus Flower 103'	바람이 데려다줄 거야 Tramontane 105'
4회	20:10	18:50	19:50	20:30	20:20	20:20
	라지아 Razzia 119'	오직 남자들만 무덤으로 간다 Only Men Go to the Grave 80'	와지브 Wajib 96'	튀니지의 살라 Challat of Tunis 90'	와지브 Wajib 96'	죽음을 떠나는 남자 Until the End of Time 94'
5회		20:30				
		자그로스 Zagros 95'				

· 모든 상영작은 한글자막 및 영어자막이 있습니다. All screening films are subtitled in Korean and English.

· **AC** 아라비안 시네토크 Arabian Cine-Talk / **OP** 오픈 토크 Open Talk / **QA** 관객과의 대화 QA